

충북도민 문화여가 및 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01 서론

1. 주제 : 충북도민의 문화여가 및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각 지자체별로 문화여가 및 의료서비스 대한 사회조사 실행 필요

2. 근거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②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설문개요

- 연구내용 : 충북도민의 문화여가 및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
- 설문기간 : 2018. 7. 20.(금) ~ 7. 27.(금) 총 7일
- 조사대상 : 충북도민 234명
- 조사방법 : 온라인(E-mail, SNS, 문자) 및 오프라인(설문지) 병행조사
- 표본추출 : 임의표본추출
- 표본오차 : 표본오차(SE : Sampling Error) 95% 신뢰수준에서 $\pm 5.66\%$

02 충북도민의 문화여가 및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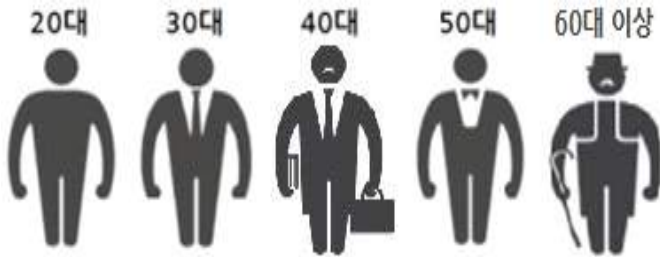
1.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234명)

1)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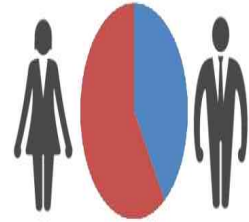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04명 (44.4%)	10명 (4.3%)	13명 (5.6%)	10명 (4.3%)	11명 (4.7%)	10명 (4.3%)	28명 (12%)	11명 (4.7%)	16명 (6.8%)	10명 (4.3%)	11명 (4.7%)
148명(63.3%)					49명(20.9%)			37명(15.8%)		



2) 연령 및 성별



평균연령
44.3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7명 (11.5%)	52명 (22.2%)	66명 (28.2%)	52명 (22.2%)	37명 (15.8%)

최고령	최연소
70세	20세

여성	남성
129명 (55.1%)	105명 (44.9%)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합계
여성	21명 (9.0%)	25명 (10.7%)	43명 (18.3%)	31명 (13.2%)	9명 (3.8%)	129명 (55.1%)
남성	6명 (2.5%)	27명 (11.5%)	23명 (9.8%)	21명 (9.0%)	28명 (12%)	105명 (44.9%)
연령 합계	27명 (11.5%)	52 (22.2%)	66명 (28.2%)	52명 (22.2%)	37명 (15.8%)	234명 (100.0%)

2. 연구결과 요약정리



본 결과는 충북도민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충북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배경 및 연구 개요

연구 배경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각 지자체별로 문화여가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사회조사 필요

연구 개요

- 연구대상 : 충북도민 234명
- 표본추출 : 임의표본추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5.66%



충북의 문화예술 참여율
'연령 높을수록 감소'

- 충북도민,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참여율 평균 85.5%
- 전국 참여율은 평균 67%로 충북보다 낮은 수준
- 20대 83%, 60대 이상 32.0%로 연령 높을수록 참여율 낮음

문화예술 관람 경험
'영화 관람' 가장 많음

- 충북도민 문화예술 관람 횟수 연 평균 14.6회
- 1순위 '영화 관람' 경험율 85.6% , 9.1회
 - 2순위 '박물관 방문' 경험율 44.5%, 연 3.8회

충북 문화예술기반
'연령 높을수록 충분'

충북지역 문화예술기반시설 충분여부 3.08점(5점 만점)
젊은 연령층은 부족
높은 연령층은 충분하다 느낌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이유
'사회활동으로 시간 부족'

충분히 즐기고 있지 못한 경우는 '사회활동으로 시간의 부족'(33.3%), '비용 부담' (29.1%), '유아, 가사 등으로 시간 부족'(11.5%), '다른 취미활동 있음' (10.3%), '관심 없음' (7.7%)등

충북도민의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개인,종합병원'

충북도민 주로 이용의료기관 1순위 '종합, 개인병원' 67.1%
전국 기준, 1순위도 '종합, 개인병원'으로 동일(통계청, 2014)
2순위는 충북은 '약국' 전국은 '국·공립 및 대학병원'

충북 의료기반 충분 여부
'연령 높을수록 부족'

- 충북지역 의료서비스 기반 충분여부, 평균 3.02점(5점 만점)
- 60대 2.87점으로 연령 높을수록 의료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
 - 연령 높을수록 의료기반은 부족하다고 느낌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연령 높을수록 높음'

- 충북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3.15점(5점 만점)
- 20대 3.00점, 60대 3.26점으로 연령 높을수록 신뢰도 높음
- 연령 높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신뢰도 높아짐



3. 세부 연구결과

1) 충북도민 문화여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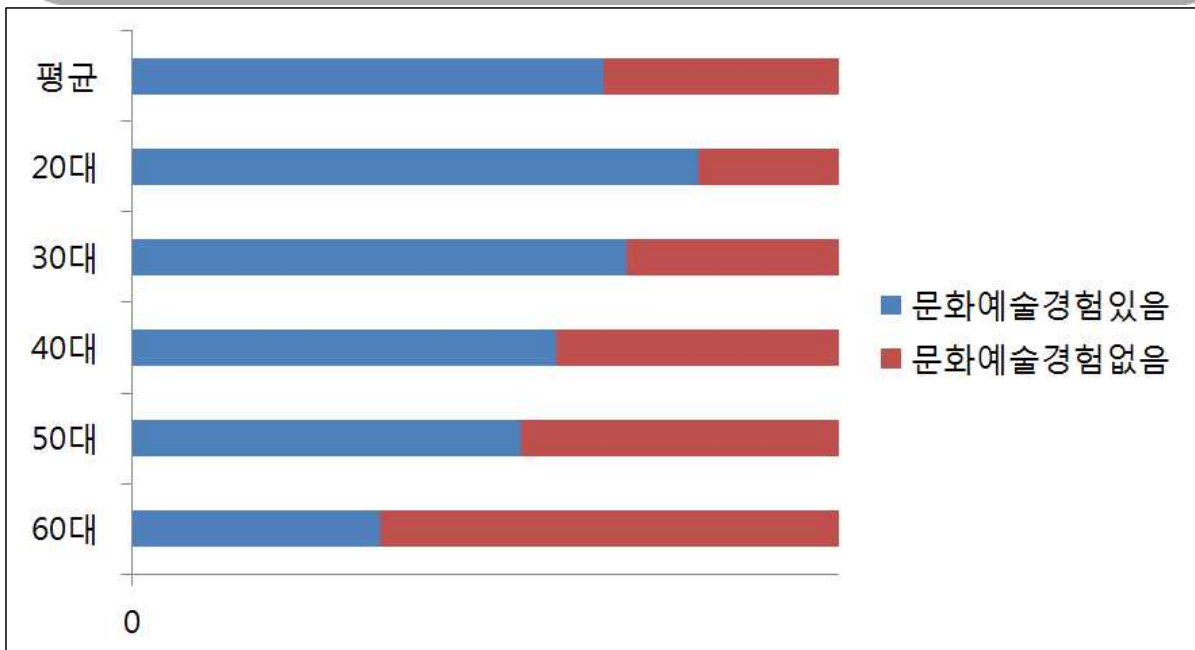
질문 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충북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결 과			
	2017		2018	
있다	208명	66.7%	200명	85.5%
없다	104명	33.3%	34명	14.5%
합계	312명	100.0%	234명	100.0%

충북도민에게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관람 경험을 묻은 결과, 관람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5.5%(200명)이었으며, 없다고 답한 비율은 14.5%(34명) 이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표한 ‘문화향유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전국의 문화예술 관람 참여율은 67%로 충북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 충북의 문화예술 참여율, 20대 83%, 60대 이상은 32.0%, 연령 높을수록 참여율이 감소



- 충북도민의 지난 1년간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율은 평균 85.5%로 나타남.
- 이를 연령별로 다시 재분석한 결과, 20대는 83%, 30대 71.5%, 40대 60.5%, 50대 43.5%, 60대 이상은 32.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 경험율이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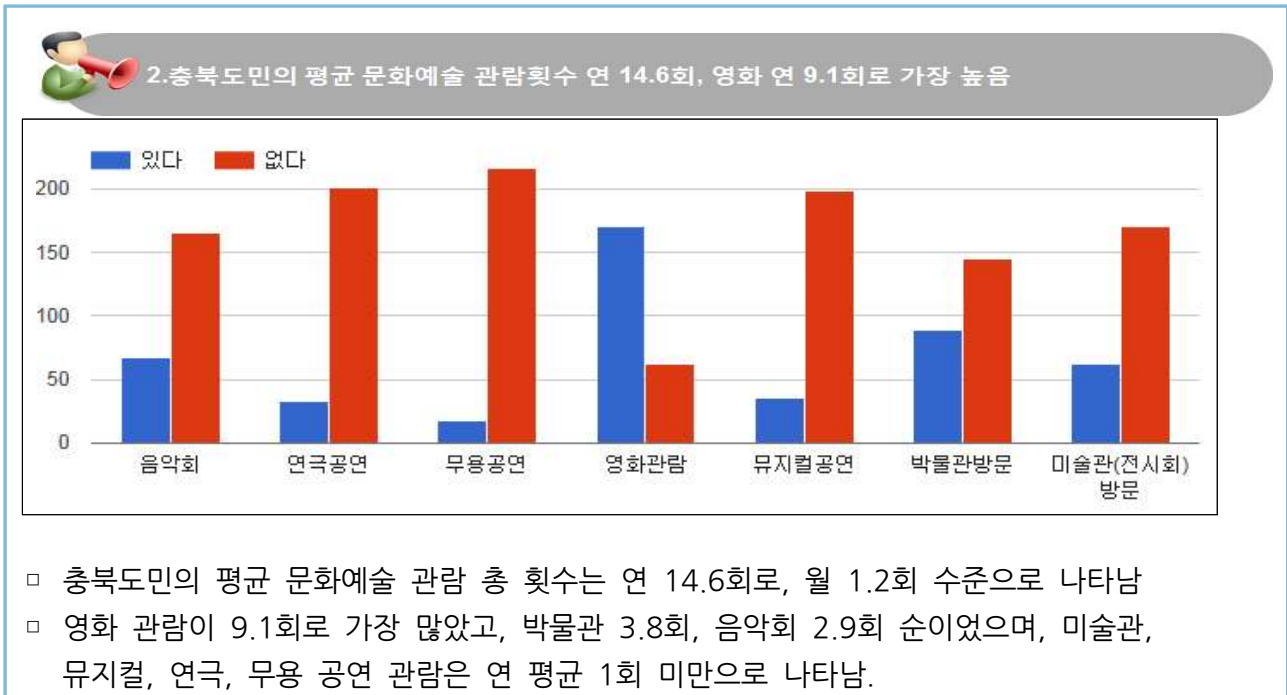


2) 관람한 문화예술의 종류

2.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관람한 문화예술은 무엇이었습니까?(중복응답)

지난 1년 간, 문화예술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순위	구분	결과			
			2017		201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영화 관람	178명	85.6%	171명	85.5%
	2	뮤지컬 공연	74명	35.6%	36명	18%
	3	연극 공연	42명	20.2%	33명	16.5%
	4	음악회	28명	13.5%	68명	34%
	5	박물관 방문	13명	6.3%	89명	44.5%
	6	미술관(전시회) 방문	10명	4.8%	63명	31.5%
	7	무용 공연	6명	2.9%	18명	9%

충북도민 중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있는 200명에게 관람한 문화예술을 물었다. 그 결과 1순위는 ‘영화 관람’이 85.5%(17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순위는 ‘박물관 방문’ 44.5%(89명), 3순위는 ‘음악회’ 34%(68명), 4순위는 ‘미술관(전시회) 방문’ 31.5%(63명), 5순위는 ‘뮤지컬 공연’ 18%(36명), 6순위는 ‘연극공연’ 16.5%(33명), 7순위는 ‘무용 공연’ 9%(18명) 순이었다. 2017년 연구조사와는 영화관람을 제외하고는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3) 충북의 문화예술 시설기반 충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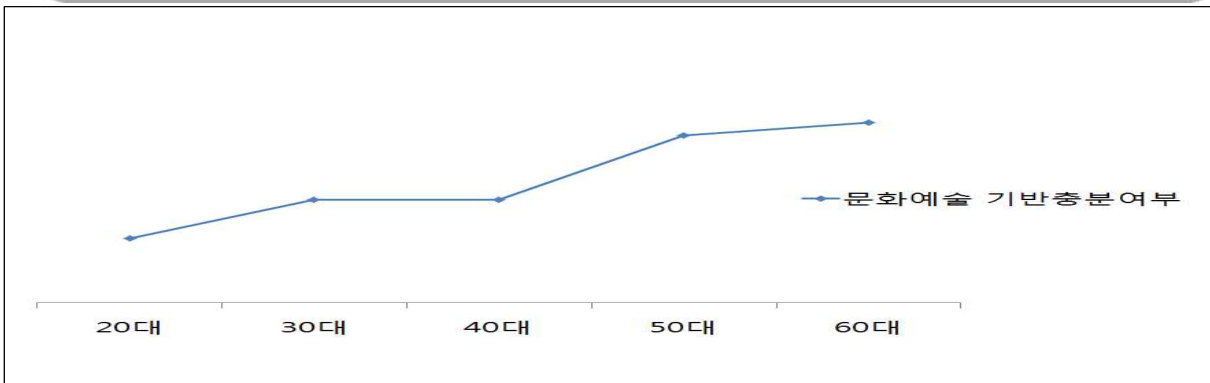
질문 3. 귀하께서는 충북지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관련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만점)

구분	결 과					
	2017			2018		
	남성	여성	연령합계	남성	여성	연령합계
20대	3.0점	2.8점	2.9점	2.9점	2.8점	2.85점
30대	3.2점	3.0점	3.1점	3.0점	3.0점	3.0점
40대	3.1점	3.0점	3.05점	3.0점	3.0점	3.0점
50대	3.3점	3.2점	3.25점	3.2점	3.3점	3.25점
60대 이상	3.3점	3.2점	3.25점	3.2점	3.4점	3.3점
성별 합계	3.2점	3.0점	3.11점	3.06점	3.1점	3.08점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관련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평균은 3.0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연구 전체평균 3.1점(5점만점)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연령별 및 성별로 재분석해 보면 남성은 3.06점, 여성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결과는 20대 2.85점, 30대 3.0점, 40대 3.0점, 50대 3.25점, 60대 이상 3.3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점은 연령층은 충북문화예술 기반은 부족하다고 느끼며 연령이 높을 수록 충분하다고 느낌'



- 연령이 낮을수록 충북지역 문화예술 기반 충분 여부 점수는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기반 충분 점수는 높아짐.

※ 비교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충분여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4) 문화, 예술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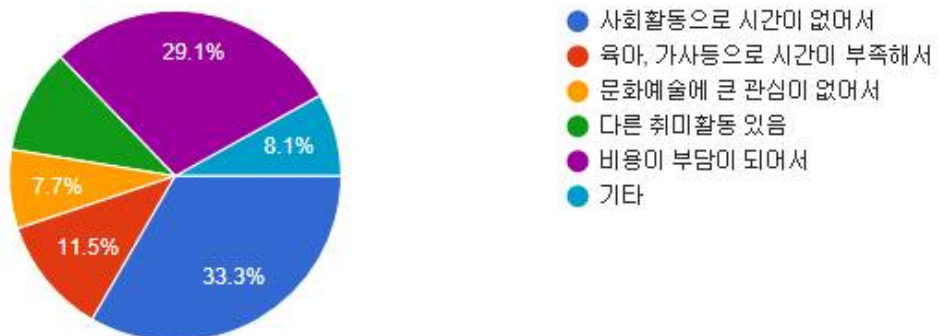
질문 4. 충분히 즐기고 있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결 과			
	2017		2018	
사회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	64명	51.2%	78명	33.3%
문화예술에 큰 관심이 없어서	33명	26.4%	18명	7.7%
육아, 가사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14명	11.2%	27	11.5%
다른 취미활동 있음	10명	8.0%	24	10.3%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	-	68	29.1%
기타 외	4명	3.2%	19	8.1%
합계				

문화, 예술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순위는 ‘사회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 33.3%(7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순위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29.1%(68명), 3순위 ‘육아, 가사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11.5%(27명), 4순위는 ‘다른 취미활동 있음’ 10.3%(24명), ‘기타’ 및 ‘무응답’은 각 8.1%(19명) 이었다. 2017년 연구조사와 비교해서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문항을 추가하였다.



4.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사회활동으로 시간부족’ ‘비용 부담’




-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회활동으로 시간의 부족과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5)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질문 5. 지난 1년 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무엇입니까?(의료법 제3조에 의한 분류방법 기준) / 중복응답 가능


구 분	결 과			
	2017		2018	
개인, 종합병원	204명	55.7%	157명	67.1%
약국	86명	23.5%	44명	18.8%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30명	8.2%	14명	6.0%
한의원	24명	6.6%	10명	4.3%
보건소	8명	2.2%	2명	0.85%
요양병원	2명	0.5%	2명	0.85%
기타	12명	3.3%	5명	2.1%
합계	2,371명	96.7%	234명	100%




개인, 종합병원
67.1%



약국
18.8%



국공립 및 대학병원
6.0%



한의원
4.3%

충북도민에게 지난 1년 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을 물었다. 2017년 조사 자료와 같이 ‘종합, 개인병원’이 67.1%(15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약국’ 18.8%(44명),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6.0%(14명), ‘한의원’ 4.3%(10명), ‘보건소’ 0.85%(2명), ‘요양병원’ 0.85%(2명) 순이었다.



5.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2순위, 전국은 ‘국공립 및 대학병원’ 충북은 ‘약국’

구분	전국(※ 출처 : 통계청, 2014)		충북	
1순위	개인·종합병원	64.9%	개인·종합병원	55.7%
2순위	국·공립 및 대학병원	19.9%	약국	23.5%
3순위	치과병(의)원	5.8%	국·공립 및 대학병원	8.2%
4순위	한의원	3.7%	한의원	6.6%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1순위는 전국과 충북 모두 ‘개인·종합병원’ 이었으나, 2순위부터는 전국은 ‘국·공립 및 대학병원’ 인데 반하여, 충북은 ‘약국’으로 나타남.
- 3순위도 전국은 ‘치과병(의)원’, 충북은 ‘국·공립 및 대학병원’이었으며, 4순위는 동일하게 ‘한의원’으로 나타남.



6) 충북 의료서비스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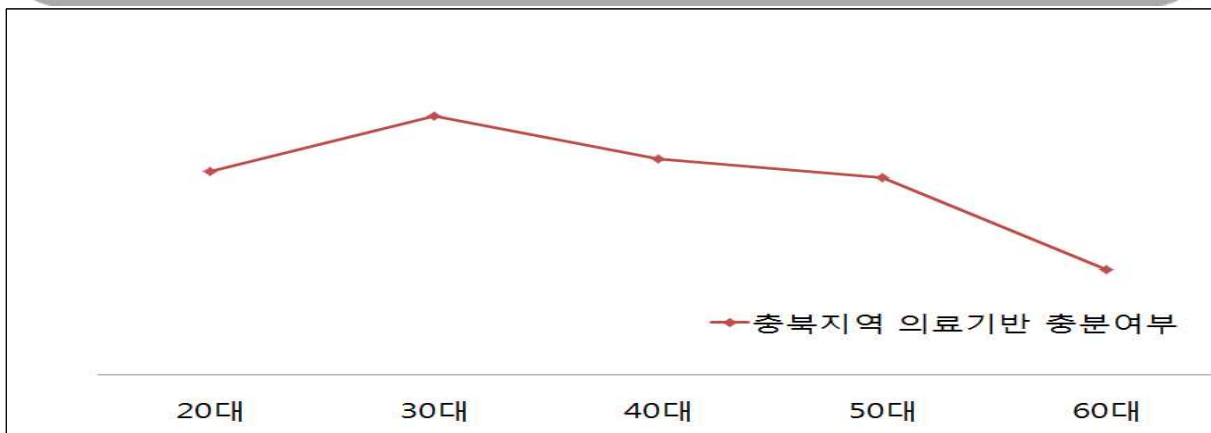
질문 6. 충북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반(약국, 병원, 보건소 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만점)

구분	2017			2018		
	남성	여성	연령합계	남성	여성	연령합계
20대	3.24점	3.03점	3.13점	3.00점	3.05점	3.03점
30대	3.23점	3.05점	3.14점	3.19점	3.05점	3.12점
40대	3.00점	3.05점	3.03점	3.03점	3.07점	3.05점
50대	3.00점	3.03점	3.02점	3.02점	3.01점	3.02점
60대 이상	2.79점	2.94점	2.86점	2.81점	2.93점	2.87점
성별 합계	3.09점	3.03점	3.06점	3.01점	3.02점	3.02점

충북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평균은 3.0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전체 평균 3.06점(5점 만점)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연령별 및 성별로 재분석해 보면 여성은 3.02점, 남성은 3.01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0.01점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3.03점, 30대 3.12점, 40대 3.05점, 50대 3.02점, 60대 이상 2.87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연령 높을 수록 충북의 의료기반(약국, 병원, 보건소 등) 아직 부족하다고 느낌



- 충북지역 의료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임.
- 즉, 연령이 높을수록 충북지역의 의료기반이 아직 적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음.



7) 충북지역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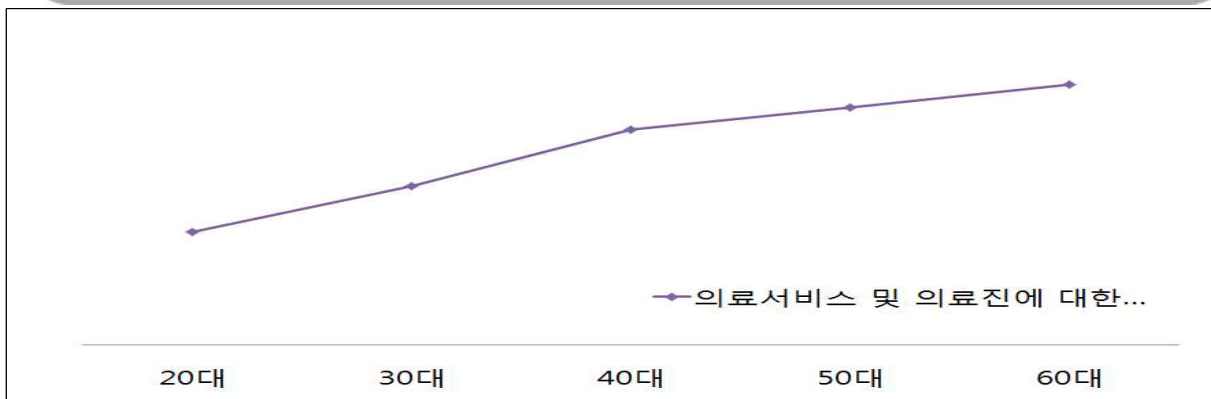
질문 7. 충북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5점 만점)

구분	2017			2018		
	남성	여성	연령 합계	남성	여성	연령 합계
20대	3.18점	3.00점	3.08점	2.99점	3.01점	3.00점
30대	2.97점	3.17점	3.07점	3.00점	3.15점	3.08점
40대	3.19점	3.05점	3.10점	3.15점	3.20점	3.18점
50대	3.21점	3.29점	3.25점	3.20점	3.23점	3.22점
60대 이상	3.21점	3.44점	3.31점	3.22점	3.30점	3.26점
성별 합계	3.14점	3.15점	3.14점	3.11점	3.18점	3.15점

충북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평균은 3.1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전체평균 3.14점(5점 만점)에 비해 조금 향상된 점수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연령별 및 성별로 재분석해 보면 남성은 3.11점, 여성은 3.18점으로 여성의 충북지역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남성보다 0.07점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연령에 따른 결과는 20대 3.00점, 30대 3.08점, 40대 3.18점, 50대 3.22점, 60대 이상 3.26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충북지역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연령 높을 수록 충북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짐



- 충북지역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음.